

30대 남녀의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차이*

김지현** · 박은아***

초 록

외모 가꾸기는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모집착에 의한 과도한 성형은 오히려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형의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성공욕구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30대 남녀 246명의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 의식 그리고 성형의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30대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의 성형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만을 보였다. 과도한 성형의도를 경험하는 개인은 성에 관계없이 사회와 문화에 의해 강요된 외모에 대한 기대감과 성공욕구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분별한 성형의도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형의도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mongsanga@hanmail.net)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park7@hanmail.net)

I. 서론

근래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은 몸짱, 얼짱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높아졌다. 여대생 2,041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 공동조사에서 이들 중 25%가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었고,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여대생의 80%가 ‘성형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조선일보, 2009). 최근 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스타로 떠오른 한 여자선수는 월등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인해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의 조건으로 성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중앙일보, 2014). 그러나 과도한 성형은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중앙일보, 2014).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한국은 여전히 인구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ISAPS, 2013).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 결과가 성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화 이론에 의해 설명되었다. 대상화란 대중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 1997).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기준이 여성으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게 하여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좌절감을 낳게 한다(Fredrickson et al, 1998).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와 관련을 가진다(McKinley, 2006). 신체에 대한 내면화된 타인의 관점 즉 대상화된 신체의식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스러운 신체부위를 개선하려 한다.

대상화 수준은 개인의 계급, 인종, 성적 지향, 개인적 경험, 신체적 특성, 미디어에의 노출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Fredrickson & Robert, 1997).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외모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다(홍금희, 2003; 2008). 대중매체 상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외모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와 수혜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많은 이익을 누린다(Spitzer, Henderson, & Zivian, 1999).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 또한 멋진 외모로 자신의 성공을 더욱 부각시키며 등장한다. 대중매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모가 사회적 성공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개인에게 심어준다. 즉 대중매체라는 사회적 응시를 통하여 ‘성공하려면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개인에게 내면화시킨다. 실제로 대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여학생의 59.4%와 남학생의 66.1%가 사회적 성공의 첫 관문인 취업에서 외모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외모를 사회 경쟁력의 요소라고 답하였다(동아일보, 2014).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 외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Hakim, 2013).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 기준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가지려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청년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형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성형의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전경란, 이명희, 2002). 이에 반해 30대를 대상으로 성형의도 등을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경우에도 외모에 대한 관심은 크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백화점의 수입화장품 구매고객 중 30대가 30.3%를 차지하여 36.4%인 20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노컷뉴스, 2012). 한편 연령대별 외모관리행동 연구 결과, 20대는 자신의 개성이나 유행의 추구를 위해, 30대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2010; 2011). 이를 통해 30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20대에 못지않지만 그 동기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는 사회적 활동이 자리를 잡고, 왕성한 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성공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외모가 직장생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와 직업성취를 표현하는 수단이란 인식은 30대의 성형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모 가꾸기와 관련한 30대의 행동과 동기를 고려할 때, 성형의도와 관련하여 이 연령 집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의 자기대상화 경험에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대상화는 한 사회 내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 중 하나이다(Fredrickson & Robert, 1997).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은 남성 보다 더 많이 신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화와 성역할 정체감은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Tolman & Porche, 2000). 특히 여성들의 자기 대상화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섭식행위에 영향을 미치며(Fredrickson et al, 1998) 남성과 비교하여 그 영향이 더 크다(Strean & Hargreav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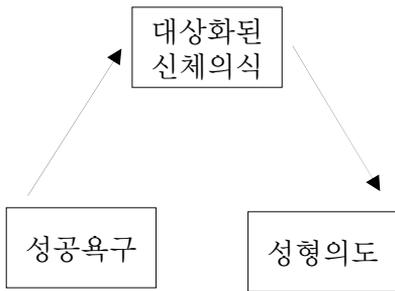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자기 대상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외모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성들도 자기 대상화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Rohlinger, 2002). 여성의 지위향상은 남성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보는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지금까지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는 관찰자였던 남성이 이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대중매체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게 한다(홍금희, 2008). 이는 남성들에게서도 이로 인한 우울, 섭식장애, 외모집착, 지나친 성형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이 치장이나 옷차림에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피부, 두발관리를 넘어 성형수술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루밍(grooming)”이란 용어의 유행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성영신 외, 2009). 남성의 1인당 화장품 구매 비용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영국 시장조사기관의 결과는 외모에 대한 한국 남성의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준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30대의 남성과 여성이 성공을 추구할수록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신체를 가지려는 대상화 수준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대상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형의도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 의식 그리고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양성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가부장주의는 ‘가꾸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풍토를 형성해 왔다(임인숙, 2005). 여성의 외모 가꾸기는 본능적이라기보다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사회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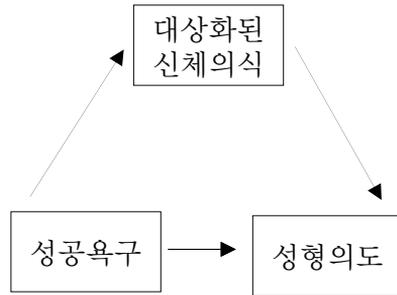
결과로 볼 수 있다(Orberg & Tornstam, 1999). 가부장제는 여성이 외모를 자본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타인의 도움 등을 더 많이 받게 하며 성공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에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Synnott, 1990). 성공에 접근하고자 하는 여성은 자본으로서의 외모를 가지기 위하여 성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McKinley, 1998; Orberg & Tornstam, 1998).

남성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상을 가지고자 하는 대상화 과정을 거치며 성공과 성형의도를 서로 관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성공하기 위해 외모를 자본화하려는 여성적인 접근에 불편함을 느낀다. 남성은 여성(성)과의 차이로 남성성을 증명하려 하고, 따라서 여성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O'Neil, 1981). 여성적 가치, 태도, 행동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뜻하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과 자본으로서의 외모를 직접 관련시키는 여성적 방식의 수용을 꺼리게 한다. 따라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술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를 신체대상화가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외모는 성공을 위한 자본이란 인식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몫이며, 따라서 오닐(O'Neil, J. M., 1981)에 의하면 남성은 성공을 위해 직접 외모를 변화시키는 의식적 노력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남성의 이런 거부감을 반영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공과 외모를 직접 관련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외모가꾸기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Tyner & Ogle, 2007). 즉 사회적 메시지에 의한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외모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은 그림 2의 대안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대안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0대 남녀의 성공욕구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따른 성형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30대 남녀, 281명에게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및 연구변인들이 포함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의표집 방식을 통해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배부된 281부의 질문지 중 26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다수 누락된 18부 및 Mahalanobis D^2 에서 4이상의 값(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을 나타낸 1부의 자료를 제외한 246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성공욕구

성공욕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오닐(1981))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번안한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K-GRCS; 이수연 외, 2012)에서 성공, 권력,

경쟁 하위요인의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역할 갈등 척도의 여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연구는 성공변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 척도가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남성,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26의 신뢰도를 얻었다. 또한 이 요인 문항들의 내용은 성역할 갈등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성공 욕구 자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O'Nei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GRCS 중 '성공, 권력, 경쟁' 요인 척도를 남녀대상 모두에게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매우 그렇다'(6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α)는 .745였다.

2) 대상화된 신체의식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OBCS)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게 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킨리와 하이드(McKinley, N. M., & Hyde, J. S, 1996)에 의해 개발되었고,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국내 실정에 맞게 변안한 한국판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S: 2007)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그리고 통제신념이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은 8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통제신념은 내적합치도가 매우 낮고,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OBCS의 하위척도로서 타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척도를 한국어로 변안하고 타당화한 연구자들은 통제신념 하위척도의 준거타당도 등이 충분하지 않으며 외국의 논문에서도 통제신념 하위척도는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들어 신체감시성 및 신체수치심의 두 하위척도도 사회적 신체의식의 내면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하위

요인인 통제신념을 제외하고, 신체감시성 8문항과 신체수치심 8문항, 총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항상 그렇다’(6점)으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 질문지의 신뢰도(α)는 .817이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신체감시성이 .793, 신체수치심이 .72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α)는 .804였다.

3) 성형의도

성형의도는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구성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리슨(Harrison, K. S., 2003)이 개발하고, 최윤정(2005)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날씬해지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성형수술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성형수술 종류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이 더해져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에 따라 ‘이미 했다’(5점)으로부터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보고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의도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번안자가 보고한 이 질문지의 신뢰도(α)는 .7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3이었다.

4)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30대 남녀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욕구에 따른 성형의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외모관리와 관련된 의견에서 30대 초반과 후반 간의 차이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간의 차이보다 큰 경우도 있음이 보고되는 등(김혜균, 2013), 30대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외모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외모 가꾸기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다(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형의도 등을 설명하는 통제 변인으로 연령과 취업여부를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18.0을 사용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배런과 케니(Baron, R. M., & Kenny, D. A., 1986) 및 서영석(2010)이 소개한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남성 모두는 취업 상태여서, 취업 여부 변인은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상수가 되어 분석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 변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총 265명이었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 및 Mahalanobis D^2 에서 4이상의 값(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을 나타낸 이상응답을 제외한 24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 분포, 평균연령 및 인구통계

	N	%	평균연령	표준편차
전체	246	100	35.08	2.99
남성	100	40.5	35.50	3.21
여성	146	59.5	34.79	2.79

성별에 따른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형의도 간에 차이는 표 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욕구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성형의도는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화된 신체의식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비교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검정	
					t	p
성공욕구	남성	100	24.510	4.640	2.657	.008
	여성	147	22.945	4.466		
대상화된 신체의식	남성	100	50.840	8.340	-1.355	.177
	여성	147	52.329	8.552		
성형의도	남성	100	7.260	3.034	-4.682	.000
	여성	147	9.336	3.653		

*** $P < .001$, ** $P < .01$, * $P < .05$

2. 변수간의 상관

연구대상 전체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집단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 그리고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여성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성형의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공욕구 변인과 연령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변인 간 상관계수

		성형의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공욕구
전체	대상화된 신체의식	.334**		
	성공욕구	.174**	.323**	
	연령	-.096	-.119	.004
남성	대상화된 신체의식	.413**		
	성공욕구	.098	.349**	
	연령	.087	-.062	.095
여성	대상화된 신체의식	.277**		
	성공욕구	.317**	.340**	
	연령	-.167*	-.148	-.106

*** $P < .001$, ** $P < .01$, * $P < .05$

3. 매개효과 검증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외식의 매개효과를 배런과 케니(1986) 및 서영석(2010)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전체, 성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단계마다 먼저 각 단계에서의 준거변인에 대한 연령과 소득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예측변인의 경로계수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집단에서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외식(1단계: $\beta=.323, p<.001$)과 성형의도(2단계: $\beta=.174, p<.01$)에 각각 유의한 경로를 보였다. 성형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외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3단계)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와는 달리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못하고($\beta=.076, p>.05$),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외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3, p<.001$). 전체집단의 경우, 대상화된 신체외식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3.541, $p<.001$).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외식에 유의한 ($\beta=.358, p<.001$) 경로를 나타내지만, 성형의도에는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못하였다. 성형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외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못했고,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외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beta=.444, p<.001$).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는 대상화된 신체외식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2.885, $p<.01$).

반면 여성 집단에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에 대한 대상화된 신체외식의 매개효과는 남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외식($\beta=.328, p<.001$)과 성형의도($\beta=.303, p<.001$)에 각각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외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성형의도에 이르는 경로는 여전히 유의하였다($\beta=.245, p<.01$). 또한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외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beta=.177, p<.05$).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 sobel test 결과는 성공욕구가 대상화된 신체의를 경유하여 성형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1.908, p>0.05$). 이 집단에서는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의 직접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전 체	1	연령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120* .323***	.119	16.370***
	2	연령 성공욕구	성형의도	-.097 .174**	.039	4.993**
	3	연령	성형의도	-.060	.109	11.023***
		성공욕구		.076		
		대상화된 신체의식		.303***		
	남 성	1	연령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096* .358***	.131
2		연령 성공욕구	성형의도	.078 .091	.016	.775**
3		연령	성형의도	.121	.109	11.023***
		성공욕구		-.068		
		대상화된 신체의식		.444***		
여 성		1	연령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113 .328***	.128
	2	연령 성공욕구	성형의도	-.135 .303***	.128	8.086***
	3	연령	성형의도	-.115	.109	11.023***
		성공욕구		.245**		
		대상화된 신체의식		.177*		

*** $P<.001$, ** $P<.01$, * $P<.05$

매개모형이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화된 신체의식 및 성형의도에 이르는 각 경로에서의 예측

변인들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대상화된 신체외식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형의도에 대하여 대상화된 신체외식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형의도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이는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로의 직접 경로에서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표 5〉 대상화된 신체외식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ΔR^2	$F(\Delta R^2)$
1	연령	대상화된 신체외식	-.105	.135	12.640***		
	성공욕구		.346***				
	성별		.132*				
2	연령	대상화된 신체외식	-.105	.135	9.442***	.000	.950
	성공욕구		.350***				
	성별		.132*				
	성공욕구*성별		-.006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성형의도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ΔR^2	$F(\Delta R^2)$
1	연령	성형의도	-.032	.196	14.675***		
	대상화된 신체외식		.262***				
	성공욕구		.137*				
	성별		-.284***				
2	연령	성형의도	-.020	.210	12.753	.014	4.269*
	대상화된 신체외식		.262***				
	성공욕구		-.004				
	성별		-.27***				
	성공욕구*성별	.184*					

*** $P < .001$, ** $P < .01$, * $P < .05$

〈표 7〉 성형의도에 대한 대상화된 신체외식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ΔR^2	$F(\Delta R^2)$
1	연령	성형의도	-.032	196	14.675***		
	성공욕구		.137*				
	대상화된 신체외식		.262***				
	성별		.284***				
2	연령	성형의도	-.034	197	11.788***	.001	.533
	성공욕구		.136*				
	대상화된 신체외식		.307**				
	성별		.282***				
	대상화된 신체외식*성별		-.058				

*** $P < .001$, ** $P < .01$, * $P < .05$

IV.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성형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외모를 얻고자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외식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모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녀 전체집단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외식과 성형의도에 각각 유의한 경로를 보였다. 그러나 대상화된 신체외식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에서 성공욕구는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고,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외식이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은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며,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이상적인 외모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적 외모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성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집단을 분리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직접경로는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고,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30대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며, 성공욕구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성형의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 간의 직접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성공욕구가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이르는 경로, 대상화된 신체이식이 성형의도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성공욕구에서 대상화된 신체이식을 거쳐 성형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30대 성인 남녀의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이식과 성형의도 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적대상화 이론은 여성의 대상화 경험 및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또한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성공욕구 및 대상화된 신체이식과 성형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대상화된 신체이식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외모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Hakim, 2013).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남성의 성적대상화 또한 가속화되고, 이는 남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남성다운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취업 등의 장면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논의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성들이 성공을 위하여 외모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성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의 외모관리는 여성화가 아니라 남성 특유의 근육 만들기 등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남성들이 성공을 위해 외모를 자본화하는 것은 전통적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의식 안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임인숙, 2005). 따라서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높은 성공욕구가 대상화된 신체의를 매개로 할 경우, 성형의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대상화된 신체의를 거치지 않고 성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직접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의 이러한 직접경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남성의 부과 권력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서로 교환가치를 지닌다고 인식되었던 과거에 비해, 여성은 학력, 직업, 그 밖의 사회적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외모 가꾸기 행동이 여성의 주체적 의지에 기반한 것이라는 페미니즘적 관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완성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외모 가꾸기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Tyner & Ogle, 2007). 즉 현대 사회의 여성은 제 3자의 시각으로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자신의 개성, 성격 또는 지적인 수준을 표현할 수 있다. 성형 또한 이처럼 자신의 외모와 내면적인 모습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구될 수 있다(유창조, 정혜은, 2002).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성형요구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진보적 사고를 가진 20대 여성이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평균연령은 34.79세이며 취업률은 70%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력을 쌓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성공욕구에는 이미 이룬 성취의 사회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런 여성의 경우,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형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이미 이룬 성취가 반영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성형의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30대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여성과 적극적인 리더형의 여성들이 자신이 이룬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모를 가꾸려한다는 연구결과(복미정, 2008)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사회적 성공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대상화된 신체이식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즉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곧 성형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녀 양성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관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성형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에 대상화된 신체이식 뿐 아니라 성공욕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신체대상화 및 그 결과에 대한 성공욕구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외모를 가꾸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모집착에 의한 과도한 성형은 오히려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며, 이런 현상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이식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따라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성형의 문제를 겪는 개인들은 이런 문제의 기저에 개인의 실존이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행복과 만족보다는 현재의 사회와 문화가 은연중 내면화시킨, 정형화된 기대와 욕구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형화된 욕구의 다수는 그 자체로 건강하지 않으며 이에 다가가는 과정과 결과 또한 해로울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가꾸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30대 성인 남녀로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임의표집 되었다. 따라서 지역과 연령을 넘어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표집이 보다 편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신중한 표집 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수의 통제 변인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성형의도 등 외모 가꾸기에 연령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 참가자의 나이 및 취업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성형의도 등 준거변인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업 여부 변인이 표집된 남성참가자 집단에서 상수로 나타나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통제 변인의 활용에 한계점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형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통제 변인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준이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상화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화가 부정적 정서나 섭식장애, 과도한 성형과 같은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왔다. 본 연구는 대상화 과정을 촉진하는 변인으로서의 성공욕구가 대상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상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추후 대상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경(2004).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외모지상주의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2010).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1)”.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459-466.
-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2011).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91-99.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6(2), 329-349.
- 김은혜(2012).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균(2013). 20, 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컷뉴스(2012.1.26). “20-30대가 수입화장품 소비 주도”. www.nocutnews.co.kr 에서 2012.1.26. 인출
- 동아일보(2014.6.15). “나, 수술로 초콜릿 복근 만들었다? 외모 스펙 시대 남성 성형 붐” <http://news.donga.com> 에서 2014.6.15. 인출.
- 박은아(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복미정(2008).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성형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952-961.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영신, 박은아, 최광열, 한신(2009). “남성의 외모가꾸기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비문화연구12(4), 47-70.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2012). 건강 및 외모관리 관련 트렌드 평가, 리서치보고서, 2012(9), 83-118.
- 유창조, 정혜은(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1), 211-232.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39(6), 87-118.
- 전경란, 이명희(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6), 71-83.
- 조선일보(2008.9.2.). “얼굴에 칼대는건 무섭다? 요즘 여대생에게 우습다.” <http://fashion.chosun.com> 에서 2008.9.2. 인출.
- 중앙일보(2014.2.13.). “강남성형외과서 수술 받은 여고생 두 달째 뇌사상태.” <http://news.joins.com> 에서 2014.2.13. 인출.
- 최윤정(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킴, 캐서린(2013). 매력자본. 이현주(역). 서울:민음사(Hakim, Catherine, Honey Money : The Power of Erotic Capital, 2010).
- 홍금희(2008). “남자대학생의 대중매체노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1149-1159.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5). Men's Grooming in South Korea..
- Fredrickson, B. L & Robert T.A.(1997). Objectification theory :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redrickson, B. L., Robert, T. A., Noll, S. M., Quinn, D. M., & Twenge, J. M.(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69-284.
- Hair, J. F., Black, W. w.,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Boston: Pearson.

- Harrison, K. S.,(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5/6)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2011). *The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1*.
- McKinley, N. M.(2006). Longitudinal gender differences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weight-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 Cultural and developmental context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Sex Roles*, 54(3/4), 159-173.
- McKinley, N. M., & Hyde, J. S.(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Oberg, P., & Tornstam. L.(1999). Body image among men and women of different ages. *Ageing and Society*, 19(5), 629-644.
- O'Neil, J. M.(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03-210.
- O'Neil, J. M.(2014). *Men's Gender Role Conflict*. APA.
- Pleck, J. H.(1995).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New York: Basic Books.
- Rohlinger, D. A.(2002). Eroticizing men cultural influences on advertising and male objectification
- Spitzer B. L., Henderson K. A., & Zivian M. T.(1999). Gender differences in population versus media body sizes: A comparison over four decades. *Sex Roles*, 40, 545-565.
- Strean, P. & Hargreaves, D.(2005). Reasons for exercise and body esteem: Men responses to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3(7/8), 495-503.
- Synnott, A.(1990). Truth and goodness, mirrors and mask.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1(1), 55-76.

- Tolman D. L., & Porche M. V.(2007). The Adolescent Femininity Ideology Scal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for girls. *Psychology Women Quarterly*, 24(4), 365-376
- Tyner, K., & Ogle, J P.(2007). Feminist perspectives on dress and the body: Ananalysis of MS. Magazine, 1972-2002.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5(1), 74-105.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Abstract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the relationship of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between women and men in 30s.

Ji-Hyeon, Kim* · Eun-Ah, Park**

Improving one's beauty has desirable effect on one's self-esteem and happiness. However, excessive plastic surgery due to immoderate obsession with appearance could harm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s. We examined how this phenomenon would be related to success desi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OBC). We conducted a survey of 261 men and women in their 30s in capital area regarding success desire, OBC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W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mediation effect of OB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This study showed the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of OBC on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by sex. In the case of men in their 30s, success desire had indirect effect on plastic surgery intention through OBC. However, among women, success desir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e study show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success desire, OBC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in not only women but men. Individuals experiencing immoderate plastic surgery intention should be aware of appearance expectation and success desire forced by the society and culture. This awareness help them overcome the problems by immoderate plastic surgery intention.

Keywords : success desir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plastic surgery inten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